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4월 12일(일) 제1584호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회복사역본부, '2026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참가자 모집 시작 ... 하단 QR코드로 신청

2026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에 대한 통합적 치료와 돌봄'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0일(일)까지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 원(식사, 간식비 및 교재비 포함). 회복사역본부 계좌(하나은행 573-910004-30205)로 입금하면 된다. 이번 정신건강 세미나 참석자는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공개사례발표회 참석 1회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에 대한 통합적 치료와 돌봄'은 5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한국기독교 상담심리학회, 한국교회 상담사역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회복사역본부가 주관한다. 1일 차 '정신', 2일 차 '정서', 3일 차 '통합'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가 이어진다.

1일 차(5월 19일)에는 채규만 교수(한국 및 미국 임상 심리전문가) '불안에 대한 뇌 과학적 근거 기반 치료 기법', 김성진 진료부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불안도 병일까', 권수영 교수(연세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 '불안은 죄가 아닙니다: 몸과 신경계로 이해하는 신앙의 회복', 채정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불안의 스펙트럼 치유: 영성행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한다.

2일 차(5월 20일)에는 이현주 교수(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불안을 도전으로 바꾸는 자기효능감', 장석연 원장(그로웨이브 심리상담센터) '우울과 불안 다루기', 유현주 교수(Soh 심리영성센터 소장) '애착과 불안: 안정애착으로의 여정', 안해용 목사(목회자마음돌봄센터장) '우울과 자살의 경계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주제로 강의한다.

3일 차(5월 21일)에는 남윤영 박사(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공동체의 우울증 환자 돌봄', 최용일 장로(청담경희한의원, 청담경희한방연구소 원장)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지키자', 정주호 대표(한동대학교 글로벌 리더십학부 겸임교수) '몸은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대한 통합적 치료와 돌봄'을 주제로 강의한다.

2026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에 대한 통합적 치료와 돌봄

Speakers



이현주 교수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채정호 교수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석연 원장
그로웨이브 심리상담센터



유현주 교수
Soh 심리영성센터 소장



안해용 목사
목회자마음돌봄센터장



남윤영 박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최용일 장로
청담경희한방연구소 원장



정주호 대표
한동대학교 글로벌 리더십학부



김성진 진료부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규만 교수
한국 및 미국 임상 심리전문가



권수영 교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이기원 목사
회복사역본부장

2026. 5.19(화)-21(목)
온누리교회 서빙고 비전홀 오전10시-15시

· 주최: 한국기독교 상담심리학회, 한국교회 상담사역 네트워크, 온누리교회
· 주관: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 회비: 5만원 (5/10까지) 하나은행 573-910004-30205 회복사역본부
· 문의: 02-3215-3532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시 모의회 공개사례발표회 1회 인정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는 “우리는 불안을 안은 채로 여전히 사랑하고, 예배하며, 내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서 “불안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과 그들을 돕고 싶은 모든 성도가 정신건강 세미나

에 참석해서 참된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532
/ 홍하영, 남현영 기자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4월 30일까지 참가자 모집

CGN 기획 K-CCM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4월 30일(목)까지 이메일(cgnhealingvoice@daum.net)로 지원서와 무반주 가창 영상(자유곡 1곡, 지정곡 1곡), 사진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가창 영상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해야 한다. 이미 데뷔한 프로 가수와 찬양 사역자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힐링보이스’ 공식 홈페이지(healingvoice.cgnkorea.net)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는 9개월에 걸친 장기 프로그램이다. 예선과 본선, 결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선정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을 수여하고, 결선에 진출하는 TOP 7인에게는 CCM 음원 발매, CGN 국내·외 투어 콘서트 참여, CGN 후속 프로그램 출연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02-3275-9333

‘미주두란노국제선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미주두란노국제선교회(TIMA)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4월 13일(월) 오후 7시 뉴저지온누리교회에서 드린다. 미주 두란노국제선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에서는 특순 ‘하나님의 부르심(선교사 일동)’, 이재훈 위임목사 말씀 선포, 한필원 선교사(과테말라 선교사) 간증, 도육환 목사(TIMA 창립 본부장, 영종온누리교회) 축사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사회는 마크 최 목사가 맡는다.

/ 남현영 기자

4월 비전헌금,
‘도교 그리스도교 대학’ 후원

4월 11일(토)과 12일(일) 봉헌하는 4월 비전헌금은 ‘도교 그리스도교 대학’을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도교 그리스도교 대학은 ‘무너진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를’이라는 교육 이념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일본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서 문부과학성 인가를 받은 유일한 4년제 대학이다. 목회자를 양성하고, 학생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훈련해서 교회와 사회로 나가도록 돕고 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공동체,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4월 19일까지 ... 의류 · 생활용품 등 기증

온누리교회와 굿월스토어가 함께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을 한다. 양재온누리교회와 인천, 양지, 평택 4월 19일, 대전과 세종 4월 19일과 26일, 강동은 4월 19일까지 상시 진행한다. 부천은 기증함이 따로 있어 상시 수거한다.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에는 캠퍼스별 지정된 장소에 의류,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주방용품, 도서 등을 가져다 두는 방식으

로 참여하면 된다. 성도들이 기증한 물품은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판매된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굿월스토어는 장애인이 일할 능력을 키워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소매 유통 중심의 직업 재활 시설이다.
문의: 1533-0091

당 회

일시: 2026년 4월 18일(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
참석대상: 전임교역자, 시무, 사역, 협동, 명예장로
안건: 2025 회계연도 감사결과보고

이재훈 위임목사, 4월 15일까지 미국 방문

동아시아 기독교 컨퍼런스 강의, 맞춤형도 특강

이재훈 위임목사가 강의와 설교 등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지난 4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기독교 컨퍼런스(The East Asian Christianity Conference)에서 ‘사도행전에 기반한 선교적 교회론(An Acts-Shaped Missional Ecclesiology: Onnuri Church and Critical Contextualization)’을 주제로 발표했다. 4월 12일(일)에는 뉴저지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4월 13일(월)에는 TIMA(미주 두란노국제선교회)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4월 15일(수)에는 필라델피아 소재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맞춤전도(The Call to Contextualize)’ 특강을 한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잠긴 문 너머 오신 부활의 주님

요한복음 20:19~21

부활을 마주한 제자들의 반응은 놀람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맞이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 당연하다는 듯 반응한 기록이 있었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의문을 제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며 놀랍고 두려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놀라운 사건이요, 기이한 사건이요, 두려운 사건입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도 친히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했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을 맞이하는 죄인 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한 그들을 유대인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죽일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숨은 것이지만, 보다 깊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죄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 절망,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등이 그들의 마음 문을 닫았고, 숨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잠근 문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잠긴 문은 그분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은 슬픔과 그분을 배신한 자책감에서 비롯된 그들의 최대한의 행동은 문을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하나의 문이 아니라 모든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까지도 잠갔습니다. 조금도 빈틈없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두려웠고, 실패가 두려웠고, 그들의 내면으로부터 도망하는 몸짓이었습니다.

문을 잠근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깥세상이 두려울 때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관계의 문을 닫고, 미래를 향한 문을 닫습니다. 잠긴 방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난처인 동시에 감옥과 같은 곳이 되어 버립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도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고 잠근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패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설명 없이, 예고 없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길 위에서 이미 달려가고 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한 제자들이 있는 곳, 잠긴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잠겼다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죽음도, 무덤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기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잠긴 문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잠긴 문을 통과하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어떠한 장벽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스펔전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과 내 영혼 사이 어떤 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그 문들이 강철판을 일곱 겹으로 대어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여시든지 통과하시든지 하여서 내 마음에 도달하실 수가 있는 분이이다.”

또한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오신 것은 단지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잠긴 것보다 굳게 잠긴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은 예수님의 상처뿐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로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부활하신 당일입니다. 그 하루 동안 여러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다른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후 내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두 제자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잠긴 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증언이 하루 종일 계속된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무렵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제자들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마음도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문에는 빗장이 하나였지만, 마음의 문 빗장에는 여러 겹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과 수치

심과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인 문을 통과하신 것은 부활하신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두려운 마음, 닫힌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열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부활하신 당일에 이토록 집요하게 제자들을 찾아다니신 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자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입니다. 상처를 내보이신 것입니다. 도마에게만 상처를 보이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부활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기 위한 열쇠입니다.

왜 상처를 보여주셨습니까? 왜 설명이나 다른 교훈을 주지 않고, 상처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잠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책감과 수치심, 실패와 절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렸다. 그분이 고난 받을 때 도망쳤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해도 나 같은 사람을 반기실 리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죄와 실패가 상처가 되어서 자물쇠처럼 그들의 마음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어떤 논리적인 설득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상처가 마음을 닫았다면,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상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치유하고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예수님의 상처’

치유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상처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를 보이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책감의 뿌리를 뽑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너를 위한 것이다. 이 상처로 네 죄값이 지불되었다. 이 창 자국으로 너와 하나님 사이의 담이 무너졌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우리가 잠근 마음의 방 안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보이신 것은 단지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굳건한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내가 살아났다. 그러므로 너희 죄는 용서 받았다. 이것이 평강의 근거다.’ 그 상처들은 영원한 중보의 증거이다.”

청교도 신학자 아이작 암브로우스도 ‘예수님이 왜 상처를 남겨두셨을까’를 두 가지로 답변했습니다.

첫째, 앞서 칼뱅이 말한 대로 제자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둘째, “그것은 그 상처와 자국들은 그리스도의 광채와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더욱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는 제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라는 선교사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증표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그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다. 당신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 상처를 남겨 두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을 때 닫힌 마음이 기쁨으로 열렸습니다. 단지 그 상처를 보고 “아, 예수님이시군요”라는 확인이 아니

었습니다. 예수님이심을 확인하는 걸 뛰어넘어 그들의 죄로 인한 죄책감, 수치심, 실패와 절망, 불안 등 그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과 상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 선포하셨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두 번 하셨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평강 사이에 상처를 보이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는 두 번의 평강 선포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 평강의 인사는 양심을 위한 것이요, 두 번째 인사는 마음을 위한 것이다. 전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에 관계된 것이요, 후자는 세상에서의 삶의 상태와 관계된 것이다. 전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롬 5:1)이요, 후자는 ‘하나님의 평강’(빌 4:7)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평강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 누리는 ‘양심의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한복판에 던져져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켜질 수 있는 ‘내

면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게 된 평강과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특히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실 때는 파송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평강은 그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 평강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평강입니다.

잠긴 문 안에서 그저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누리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기쁨은 결코 내 안에 머무는 사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혼자 간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갑자기 용감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고, 어떤 전략을 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잠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잠긴 방 안에 머물도록 부름 받지 않았습니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문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 다. 유대인들의 위협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바뀌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일하는 세상, 전쟁과 기근과 갈등으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긴 방 안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오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우리의 잠긴 마음의 방 안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 평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사랑은 잠긴 문을 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사랑으로 닫힌 문을 열어, 우리 스스로 잠근 문을 열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잠긴 문을 열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기독교인들이 항상 법을 지켜야 할까?

대화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법을 어겨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 사회 질서는 선한 것이며, 우리의 법은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법만 지킨다면, 그 결과는 혼란일 것이다. 그러나 악법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도 악법을 따라야 하는가? 다음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정부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한다. 정부, 교회, 가정 같은 모든 사회 제도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 각각은 고유한 목적을 가진다.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한 방식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법을 따라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법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제자도의 일부이기도 하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게서 보냄을 받은 총독들에게 하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법 준수에 대한 가르침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통치자 중 하나였던 네로 치하의 로마 제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법을 따를 의무는 나

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어떤 법이든, 심지어 악법이라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인가? 이것이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진다.

셋째, 법에 도전하는 것도 법에 순종하는 한 방식이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현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법을 바꾸고 노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계속했다(행 5:29). 그는 더 높은 법을 따르기 위해 사람의 법을 어긴 유일한 성경 인물이 아니다.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이집트의 산파들은 이를 거부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인정하셨다(출 1:17, 21).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에서 구해

끌며 시민 불복종을 실천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의해 반복되었다.

시속 90km 제한이 120km보다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배를 금지하거나 낙태를 강요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므로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불복종할 의무가 있다.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행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셨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인은 법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심지어 나쁜 지도자가 있을 때도, 순종하고 신실한 시민이 되기를 요구하신다.”

“법적 절차로 악법에 도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의무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 성경과 교회 역사는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의 법에 순종할 의무가 끝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가득하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자녀 교육

자녀의 정체성, 지금 누가 채우고 있나?



강애리 목사
(바른교육진흥원,
온누리세계관학교)

내준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변화의 속도가 인간의 적응을 앞질러 갈 때,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미래 충격’이라 불렀다. 지금이 그런 시대다.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답하지 못한다. 정보는 넘치는데 정체성은 비어 있다. 그 빈자리를 외부에서 주입된 기준이 채운다. 많은 부모가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 자

존감 훈련, 강점 발견, 감정 코칭을 시도한다.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아이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선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성취로 쌓은 자신감은 실패 앞에서 무너지고, 인정으로 만든 가치는 거절 앞에서 흔들린

안에서 충족될 때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고, 그렇지 않을 때 세상의 기준에 흔들린다.

순서도 중요하다. “나는 누구를 믿을 수 있나?”라는 안전감의 질문에 답이 없는 자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안전감의 방은 어떻게 채워지는가? 좋은 학

“진리에 뿌리내린 사랑만이 자녀의 정체성을
무너지지 않게 세운다. 자녀를 바꾸기 전에
부모의 기준부터 점검하라.”

다. 성경적 기준은 분명하다. 정체성은 외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서밋 미니스트리(Summit Ministries)의 대표 제프 마이어스(Jeff Myers)는 “자녀들에게 다섯 개의 핵심 필요의 방이 있다”고 말한다. ‘안전감’, ‘정체성’, ‘소속감’, ‘목적성’, ‘역량’이다. 각각의 방은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설계된 내면의 공간이다. 이 필요들이 하나님

별, 팔로워 수, 성적 등 많은 부모가 이것으로 자녀의 안전감을 채우려 한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나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믿느냐?”다. 부모는 완전한 안전이 될 수 없지만, 자녀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통로는 될 수 있다.

부모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선하심 위에 설 때, 자녀에게도 그 안전감이 전해

진다. 실수했을 때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해주자. 어려운 질문 앞에서 “같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자”라고 말해주자. 자녀의 감정은 공감하되 기준은 명확히 세워주는 것. 그 반복 속에서 자녀는 배운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말이다.

안전감의 방이 채워질 때, 나머지 방도 함께 열린다. 정체성의 방은 하나님의 선언 위에 서고, 소속감의 방은 평가 없이 머물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채워지며, 목적성과 역량의 방은 그 안전한 자리에서 비로소 꽃핀다. 자녀의 정체성은 부모를 통과해 형성된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더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질문은 결국 이것이다.

‘나는 지금 누구를 신뢰하는가?’

진리에 뿌리내린 사랑만이 자녀의 정체성을 무너지지 않게 세운다. 실패 앞에서도 관계를 먼저 지켜라. 결과보다 존재를 먼저 말해주라. 자녀를 바꾸기 전에 부모의 기준부터 점검하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가 선교지! 내 달란트는 선교 도구!

‘캠퍼스 복음화’ 꿈꾸는 백은희 교수의 확신

“나를 따르라”(마 16:24).

2026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전제한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이다.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을 향하기 때문이다.

〈온누리신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난다.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뜨겁게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과 고백을 듣는다. 그 일곱 번째 주인공은 ‘국립공주대학교 백은희 교수(양재온누리교회)’다. 그녀는 캠퍼스를 선교지로 여기고, 자신의 달란트와 ‘국립공주대 기독교연합예배’라는 선교 도구를 사용해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고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이른 아침, 아직 캠퍼스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인데 강의실 불이 하나둘 켜졌다. 그리고 전공 서적 대신 성경책을 든 예배드리는 사람들, 교수와 학생, 지역 교회 성도들이 모였다. 국립공주대학교 신우회 소속 교수들, 기독교 동아리 학생과 간사, 지역 교회 성도들이다. 그들은 무릎부터 꿇었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들, 캠퍼스 복음화를 간구하며 뜨겁게 부르짖었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교단과 소속을 넘어 기독교 공동체 이름으로 하나 된다. 그들의 기도와 예배는 특별하다. “내가 있는 곳이 곧 선교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선교 도구”라는 고백을 일상에서 증명하고 있기에 그렇다. 그 갈망이 캠퍼스 복음화라는 엄청난 비전을 완수하는 원동력이라는 확신마저 들었다. 지난해 KUPM(전국교수선교회)과 CCC연합평창대회에서 백은희 교수의 발표로 전국 대학 기독교 공동체에 소개되며 점차 더 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바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신우회와 기독교 동아리가 함께 드리는 ‘국립공주대 기독교연합예배’다.

국립공주대 기독교연합예배는 2010년대, 국립공주대학교 음악교육과 백기현 교수가 교수신우회 회장을 역임할 당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시작했다.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과 간사, 교수들이 함께 모여 ‘복음 전도’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린 연합예배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지경이 넓어졌다. 지금도 ‘CCC(Campus Crusade for Christ), JDM(Jesus Disciple Movement), DFC(Disciples For Christ), SFC(Student For Christ), ESF(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VF(Korea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비전선교단’ 등 주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는 ‘국립공주대 기독교연합예배’ 현장(왼쪽)과 백은희 교수(오른쪽).

요 기독교 동아리 구성원들과 간사, 교수신우회 소속 교수들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 장로와 권사, 선교사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매주 적게는 7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인다. 캠퍼스와 지역 교회가 연결되는 통로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국립공주대 기독교연합예배

국립공주대 기독교연합예배의 특징이 뚜렷하다. 교수신우회, 기독교 동아리, 지역사회 교회와 함께하는 연합예배는 개강 및 공강 감사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다. 매 학기 약 11주 동안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된다. 예배는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의 찬양을 시작으로 교수신우회 교수들의 기도, 간사 및 지역사회 목회자들의 말씀 나눔으로 이어진다. 또한 국립공주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문이 활짝 열린 예배다. 이 지속성과 개방성은 학생들이 복음을 더욱 쉽게 접하는 환경을 만든다.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한 대부분 학생은 이미 크리스천이다. 신앙을 가진 학생들을 돌보고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어찌하면 더 중요하다. 연합예배는 신앙공동체를 넘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학생들이 친구 초대로 왔다가 부담 없이 예배드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복음은 관계에서 전해지기 때문이다.

연합예배의 핵심은 ‘연합’에 있다. 국립공주대학교 6개 기독교 동아리, 교수신우회 소속 교수들이 늘 그 자리를 함께한다. 모든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주신 캠퍼스 복음화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다. 국립공주대 기독교연합예배가 국립공주대학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선교 도구인 이유가 바로 그것

이다.

말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최근 대학가는 상대적 가치관의 혼란과 영적 황폐함, 갈수록 교묘해지는 이단 및 사이버 단체의 포교로 인해 복음화가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크리스천 교수님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힘과 영적 귀감이 됩니다. 말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수들에게 이 여정이 쉬운 길은 아니다. 치열한 연구 성과와 업적 평가가 생존과 직결되는 대학에서 매주 시간을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작지 않은 결단을 요구한다. 그러나 백은희 교수의 생각은 분명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훨씬 큰 축복이고, 영향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백은희 교수는 그래서 국립공주대 기독교연합예배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자리’라고 고백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큼니다. 이 영향력을 전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수들이 학생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은 말로 전하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 큰 울림을 준다고 믿습니다. 저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진 교수님들이 교수신우회에서 활동하고, 기독교 동아리와 학생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는 그 존재만으로도 전도의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제자도 실천’

백은희 교수가 생각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은 특별한 환경이나 특정 순간에만 드러나는



게 절대 아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곧 일상의 자리에서 이어지는 제자도 실천이 핵심이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국립공주대학교 캠퍼스는 저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수 전하는 일을 함께하며 선교 도구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 교수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캠퍼스 복음화의 꿈을 이뤄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제자도 실천이라고 확신합니다.”

특수교육과 교수로서 장애 학생을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는 백은희 교수는 일과 업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고 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다른 하나는 ‘이 일이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면 비록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고 시간을 내야 하는 힘든 선택일 지라도 기꺼이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순종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일을 할 때에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상기한다고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백은희 교수가 대학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천 교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지입니다. 특별한 사역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강의실과 연구실, 학생들을 만나는 모든 장소가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목사가 들려주는 ‘선교사 이야기’

희망의 울타리 ‘사애리시 선교사’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차세대)

“나를 따르라”(마 16:24)는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하고도 가슴 벅찬 부르심은 2천 년 전 갈릴리에서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은혜와 신앙 유산 뒤에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삶을 던져 응답했던 이들의 발자취가 깊게 배어 있다. 이름 모를 낯선 땅에 자신의 가장 빛나는 젊음과 생명을 기꺼이 심었던 선교사들이 있었다.

다음세대에게 ‘선교사’라는 존재는 종종 교회사 책에 갇힌 위인이거나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헌신자로만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삶의 궤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지금의 다음세대들처럼 치열하게 진로를 고민하고, 때로는 현실 앞에서 흔들렸던 평범한 청춘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면에서는 목사의 시선으로 그들의 가려진 삶과 땀방울을 다시 꺼내 차세대의 가슴에 심어주고자 한다. 먼저 좁은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숨결이 단순한 과거 회상이나 영웅담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만남이 차세대에게 거룩한 부담감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온누리교회의 다음세대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한다.

사애리시 선교사의 아주 특별한 사랑

오늘은 우리를 깊이 사랑했던 ‘사애리시 선교사’ 이야기를 전한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던 1900년, 사애리시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힘겨운 항해 끝에 태평양을 건너 조선 땅에 도착했다. 두려움과 위험이 가득했지만, ‘한국의 아이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용감하게 걸어왔다.

당시 조선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에게는 배움의 기회

가 없었다. 학교에는 남학생들만 가득했고, 여자아이들은 글을 배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남자들만 모여서 ‘홀아비교회’라고 불릴 정도였다. 이런 모습을 본 사애리시 선교사의 마음이 몹시 아팠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귀히 여기시는데, 왜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소외되어야 하는 걸까’라는 깊은 고민 끝에 ‘내가 이 땅에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충청남도 공주에 세워진 학교가 바로 ‘명설학당(훗날 영명학교)’이다. 온 동네에서 남자아이들만 당당하게 학교에 가던 시절, 이 학교 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아이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과 자부심이 샘솟았을 것이다. 사애리시 선교사는 아이들만 가르치지 않았다. 글을 모르는 어른들을 위한 ‘성경 부인반’을 열어서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주

“사애리시 선교사의 사랑은 여성에게 희망을,
낮은 곳에 위로를,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었다. 그 덕분에 여성들이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사애리시 선교사의 사랑이 낳은 가장 위대한 열매는 유관순 열사와의 만남이다.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유관순의 총명함을 발견하고, 배움의 열정이 있던 그녀를 공주 영명학교로 데려와 공부하도록 도와줬다. 사애리시 선교사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어린 유관순은 이화학당으로 진학해서 신앙과 학문을 키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단단히 다졌다. 훗날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당당히 서게 된 것은 바로 이때 심어진 믿음과 용기 덕분이었다.

사애리시 선교사의 발걸음은 교실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당시 조선의 시골 마을, 깊은 산골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아픈 이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온 힘을 다했다. 힘겨운 여정이었지만,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그 길을 ‘사랑의 길’이라 여기며 불평하지 않았다.

사애리시 선교사는 낮 동안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던 어른들을 위해 야학도 열었다. 사애리시 선교사가 켜 등불 아래서 ‘나는 이제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기쁨과 ‘내 이름을 쓸 수 있다’는 자부심을 되찾았다. 사애리

시 선교사는 교육이 사람의 마음을 세우고, 존엄을 회복하는 일임을 보여주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공주 감옥에 갇힌 제자들과 청년들이 절망에 빠졌다. 사애리시 선교사는 일본 경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감옥으로 용기 내어 찾아갔다. 갇힌 제자들의 손을 꼭 잡고, 준비한 음식을 전하며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했다. 그 따뜻한 마음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걸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고, 낮은 곳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로 향한다는 것을 사애리시 선교사의 삶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

사애리시 선교사의 마지막 사랑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자신의安危를 내려놓고, 만세운동에 참여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감싸안고 지켜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격려와 기도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다. 김복희 열사가 회상했듯이, 스승의 사랑은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지켜준 따뜻한 담요와 같았다.

사애리시 선교사 혼자서만 이 울타리를 만든 게 아니다. 다른 선교사들(의로 선교사, 말씀 선교사)과 힘을 합쳐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든든한 공동체를 제자들에게 물려주었다. 영명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은 유관순, 이화란 같은 여성들은 스승의 사랑 덕분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마음을 배웠고, 3.1운동으로 체포된 뒤에도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며 그 사랑을 실천했다.

1939년, 사애리시 선교사가 일본 당국의 강제 조치로 미국에 돌아가야 했을 때도 그 사랑의 울타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제자들이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충남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스승의 사랑을 기억하며 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사애리시 선교사의 삶은 진정한 사랑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든든한 울타리가 될 때 더욱 빛나는 진리를 보여준다. 그분의 사랑은 여성에게 희망을, 낮은 곳에 위로를,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라의 자유를 향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했다. 그 사랑의 유산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99.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4월 6, 9일
본문 ‘마 28:12~20’, ‘시 92:9~15’

1.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마 28:19~20).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보기를 읽고 예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을 골라 보세요.

- 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②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③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심판하여라

2. 하나님은 악인을 무너뜨리시고 의인을 높여주시는 분이예요(시 92:9~15). <시편> 기자는 의인은 어떤 나무처럼 번성하며 성장한다고 비유했나요?

- ① 사과나무와 포도나무
② 종려나무와 백향목
③ 버드나무와 가시나무

3. <시편> 기자는 의인을 ‘이곳’ 심긴 나무로 비유했어요(시 92:13). 의인들은 어디에 심겨 있어서 번성하게 되나요?

- ① 화려한 궁전 ② 넓은 들판 ③ 깊은 산속 ④ 여호와와 집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선정).

하트스쿨 참가자 간증

하트스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귀여운 동생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무척 즐거웠다. 선생님들께서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처음에는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참여해 보니 유익한 수업과 동생들과의 만남 덕분에 점점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

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끝이 다가오는 것이 아쉬워서 남은 날짜를 세보기도 했다.

최고 학년으로서 어린 동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고 함께 배우고 어울린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다만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하트스쿨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가족,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하트스쿨을 통해 하나님을 즐겁게 알아가면 좋겠다.

방찬솔 학생
(도곡 중등부)

“AI 전쟁의 시대, 알고리즘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2026년 봄, 중동 전쟁을 보는 관점과 AI 데이터 전쟁



강찬욱 장로
(이촌공동체)

최근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긴장과 충돌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많은 성도에게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포괄적인 안보와 경제적 위기를 초

래하고 있다. 미사일과 드론, 정밀유도무기가 오가는 오늘날의 전장은 더 이상 단순한 국가 간 충돌이 아니다.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들이 혼재되고,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금융 시스템까지 동시에 흔드는 복합적 위기다. 또한 물리적 전장을 넘어 사이버와 데이터, 인지의 영역까지 확장된 ‘전 영역 전쟁(All-Domain Warfare)’이다.

특히 오늘날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상당 부분 승패가 결정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전장을 설계하고, 인간은 그 결과를 수행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전쟁의 주체 역시 국가뿐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NSA)까지 확장되며, 전장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공포나 감정이 아닌, 신앙적 통찰에 근거한 새로운 관점(Perspective)으로 전쟁을 바라봐야 한다.

C4I에서 C6I로,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군사이론에서 현대전은 오랫동안 C4I 체계로 설명되어 왔다.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s), 컴퓨터(Computers), 정보(Intelligence)의 통합이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전장은 C5I를 넘어 C6I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AI, 사이버(Cyber),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 결합하면서 ‘전 영역 통합 지휘 체계’가 현실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휘관, 참모들이 보고를 받고 야날로그식 결심을 해서 작전 지시를 내렸다면, 이제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된 네트워크 속에서 AI가 수조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방책(Course of Action)을 제시하며, 심지어 실시간 자동 실행까지 수행한다. 인간의 인지 속도를 넘어서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 전장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시대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 정보 우위의 시대를 넘어 ‘의사결정 속도’와 ‘데이터 통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동시성과 통합성 시대가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과 통제 능력이 약화하는 구조적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치명적 자율형 살상 무기(LAWS)와 무너지는 도덕적 방어선

이 시대 가장 심각한 위기는 AI 무기의 ‘치명성(Lethality)’이다. 효율과 속도만을 기준으로 설계된 자율 무기는 감정도, 윤리도 없이 목표를 제거한다. 특히 살상의 최종 결정을 기계가 내리는 ‘치명적 자율형 살상 무기(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는 전쟁에 관한 인류의 도덕적, 윤리적 방어선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는 최소한 인간의 양심과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AI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뿐 ‘가장 옳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바로 이 간극이 현대 전쟁의 가장 본질적인 위기다.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문’은 이러한 시대적 위험 앞에서 “알고리즘과 AI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정의의 전쟁론이나 제네바 협약과 같은 인류의 윤리적 성취가 무력화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영적, 윤리적 방어선으로 서야 한다.

DX에서 AX까지, 기술의 정점에서 마주한 인간의 한계

우리는 지금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의 시대를 살고 있다. 기술은 점점 완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의 한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AI가 모든 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결정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분명히 선포한다(삼상 17:47). 인간은 전략을 세우고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의 최종 상태(End State)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체할 수는 없다. 기술이 정점에 이를수록 인간의 오만은 커지지만, 동시에 그 한계 또한 드러난다. 이 지점에서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AI시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HI’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기술 능력이 아니라 ‘통전적 지능(HI, Holistic Intelligence)’이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 기술과 신앙, 윤리와 사명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이다. AI가 지식을 빠르게 생산하고 결정을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에게는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선택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지능이 요구된다. HI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이다.

첫째, ‘도덕 지능(Moral Intelligence)’이다. 이는 기술의 한계를 설정하는 양심의 힘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다. AI는 승리와 효율을 계산한다. 그러나 그 과정의 정의와 결과의 공의는 판단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그 승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지, 악자를 희생시키는 선택은 아닌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도덕 지능은 단순한 윤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느끼는 신앙적 양심이며, 기술이 폭주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영적 안전장치다.

둘째, ‘융합 지능(Transdisciplinary Intelligence)’이다. 오늘날 전쟁과 사회는 하나의 학문이나 영역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구조로 되어 있다. 기술과 안보, 경제와 문화, 그리고 신학과 세계관이 서로 얽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단편적인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결합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모든 영역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복잡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보와 성령의 지혜를 함께 불드는 통전적 사고가 필요하다.

셋째, ‘AI 활용 지능(AI & Application Intelligence)’이다. AI시대에 기술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기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다스리는 ‘청지기적 능력’을 의미한다. 데이터와 알고리즘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큰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넷째, ‘공헌 지능(Engagement Intelligence)’이다. 이는 기술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지능이다. AI는 중립적 도구이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목적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파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기술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평화(Shalom)를 확장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공감과 연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책임감이 바로 공헌 지능의 핵심이다.

결국 HI는 기술을 넘어서는 능력이 아니라,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기준이며 방향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러한 통전적 지능을 갖춘 그리스도인만이 차가운 기술의 시대 속에서도 따뜻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알고리즘을 넘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전쟁은 더 이상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다. C6I로 대표되는 초연결 전장,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는 초지능, 그리고 치명적 자율형 살상 무기(LAWS)의 등장은 전쟁의 주도권이 점점 인간의 손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터가 전장을 설계하고 알고리즘이 결정을 내리는 시대, 인간은 그 결정의 실행자로 전략할 위험 앞에 서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 전쟁의 양상은 변했지만, 전쟁의 주권은 변하지 않았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역사의 최종 상태(End State)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과 방책(Course of Action)을 설계해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수는 없다.

오히려 AI 전쟁의 시대는 인간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가장 빠른 계산이 반드시 가장 바른 판단이 아니며,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반드시 가장 정의로운 결과를 낳지 않는다. 이 시대는 기술이 아니라 ‘분별력’을, 지능이 아니라 ‘지혜’를 요구한다. 이때 교회와 성도는 결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 도덕 지능으로 경계를 세우고, 융합 지능으로 시대를 해석하며, AI 활용 지능으로 기술을 선용하고, 공헌 지능으로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결국 이 시대의 승패는 기술이 아니라 방에서 결정된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어떤 질서를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세상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세상은 알고리즘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무릎으로 답을 찾는다. 진정한 지휘통제실은 워룸(War Room)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이며, 진정한 전략은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 시작된다.

“알고리즘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고백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혼돈의 시대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며, 기술의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림으로 보는 성경 속 식물 이야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벚꽃’과 ‘우슬초’에 담긴 예수의 사랑



김준영 권사
(온누리 아트비전 고문,
KCAF 운영위원장, 한
국미술인선교회 부회장,
로템갤러리 큐레이터,
에제르화실 원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계절이다. 흠날리는 벚꽃으로 온통 설레는 거리가 되면 우리는 그 꽃들을 보며 행복해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시편> 148편은 “하늘과 해와 달, 밝은 별들과 모든 피조 세계가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모든 만물은 마땅히 창조주를 노래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사람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 받은 존재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 표현 못 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 해도 나 고백하리라 ...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찬양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이 나의 작업 주제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길 없으나 붓끝으로나마 그 감격을 고백한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랑과 긍휼을 몸소 보여주시고,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한다.

화실에서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즐겨 부르는 또 다른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묵상하면 눈물이 난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되새기며 찬양의 고백을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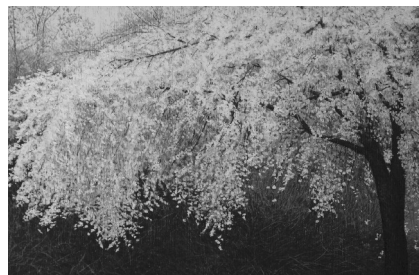
은혜의 단비와 그리스도의 향기



은혜의 단비 -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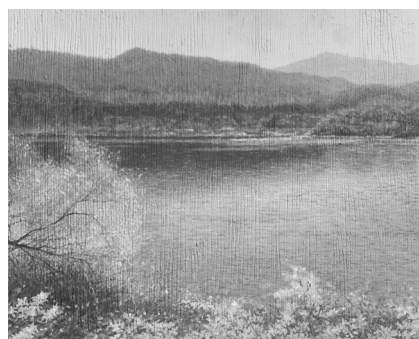
20호 캔버스에 메디움을 두껍게 바르고 붓끝으로 수직의 질감을 낸다. 이는 누구에게

나 차별 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단비’를 의미한다. 마티에르가 마른 뒤 그 위에 벚꽃을 그리며 노래하듯 사랑을 표현한다. 맑은 푸른색 하늘과 분홍, 보라색이 어우러진 벚꽃, 그리고 은혜를 강조하는 주황색을 덧발라 입체감을 살렸다. 이 그림을 보는 이들의 마음에도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기도한다.



은혜의 단비 - 향기(30호M)

벚꽃은 대개 하늘을 향해 피지만, 수양벚꽃은 아래로 늘어진다.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향기를 내뿜는 모습을 담았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한다(고후 2:14-15).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에게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작업했다.



은혜의 단비 - 부활의 평강(20호F)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shalom)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겨울나무에서 새순이 돋듯, 환경을 초월한 내면의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은혜의 단비 질감 위에 노래하듯 표현했다.



은혜의 단비 - 부활의 노래(20호P)

잔잔한 물가에 만개한 벚꽃이 예수님의 부활을 환히 노래한다. 우리 삶에 겨울 같은 고난이 지나고 반드시 봄이 온다는 믿음과 찬양을 담았다.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은혜의 단비 -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Ⅲ(6호F)

구원의 상징인 우슬초에 꽃이 피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긍정의 마젠타 색상 위에 우슬초를 찬양하듯 올렸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슬초 묶음에 어린양의 피를 적서 문설주에 뿌렸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쳤기에 우슬초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히브리어 ‘에조브(Ezov)’는 ‘지나가다’ 혹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지닌다. 이는 유월절(Passover)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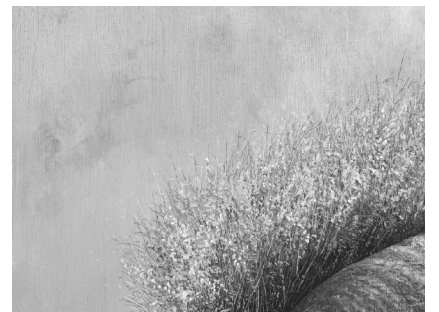
우슬초는 메마른 돌 틈에서 자라는 강인한 풀이다. 줄기와 잎에 잔털이 많아 피나 물을 머금기에 적합해서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도구로 자주 등장한다(민 19:18).

밭세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자복하고 통곡하며 침상을 적시며 쓴 시가 <시편> 51편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 하나님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열왕기상> 4장 33절에서는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백향목이 ‘교만’을 상징한다면, 우슬초는 낮은 곳에 거하는 ‘겸손’을 상징한다. 스스로 백향목처럼 높아졌던 다윗은 가장 낮은 우슬초의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마젠타 빛 위에 피어난 구원의 소망



은혜의 단비 -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20호F)

캔버스에 메디움을 나이프로 펴 바른 다음, 은혜의 단비를 의미하는 수직 질감을 새겼다. 바탕색으로는 자홍색인 마젠타와 흰색을 섞어 사용하고 왼쪽 위로 빛을 표현했다.

우리는 일상에서 화장하듯 분홍빛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거룩한 척, 잘 사는 척 살아간다. 속으로는 죄성 때문에 울고 아파한다. 교만하다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책하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기 질투하고, 나누지 못하며, 섬기지 못하고, 남 탓만 한다. 틈만 나면 자랑하려 하고, 욕심을 내고,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우리 안에는 선한 구석이 없다. 아파트의 불 켜진 창들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안에 갈등과 슬픔이 있듯, 우리 역시 때 순간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반전의 식물’인 우슬초가 필요하다. 우슬초는 교만을 겸손으로, 질병을 치유로, 부정된 것을 정결함으로 바꾼다.

바탕색으로 쓴 마젠타 색은 ‘회합, 활력, 용기, 긍정’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낙담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마음의 문설주에 보혈을 바른 ‘구원 임한 자’ 이기에 하나님과 화합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 19:30).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우슬초 가지에 매인 해면(스펀지)을 통해 포도주를 받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작지만 강인한 우슬초처럼, 우리의 삶도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머금고 정결하게 피어나기를 소망한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김준영 작가 개인전 ‘부활의 평강·은혜의 단비’

일정: 4월 7일 ~ 5월 10일

장소: 온누리아트갤러리

문의: 010-3128-2332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목사님, 제가 요즘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영적 침체는 불현듯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듯하고,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글자처럼 느껴지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인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많은 청년이 이 시기를 겪을 때 가장 먼저 ‘죄책감’이라는 굴레를 스스로에게 씌운다.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정죄하기도 한다.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에게 나는 가장 먼저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영적 침체는 당신이 신앙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몸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영적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엘리아는 영적 침체를 겪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준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워 승리한 영적 거인이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에서 그는 이세벨의 위협 한 마디에 무너져 광야로 도망친다. 로렐나무 아래 쓰러진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왕상 19:4b).

바로 이것이 영적 침체의 본질이다. 어제까지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았던 신앙의 용사도, 오늘 단 한마디의 말이나 상황 앞에서 무기력

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영적인 문제는 때로 육체의 한계에서 시작된다. 만약 지금 나의 신앙이 무기력하다면 먼저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게 필요하다. 충분한 잠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일상의 휴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둘째,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호렐산에선 엘리야 앞에 강한 바람과 지진, 불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다.

“영적 침체가 우리를 짓누를 때 스스로 채찍질하기보다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의 초대를 기억하자.
약속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하게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거나 사역 현장으로 당장 복귀하라고 몰아세우지 않으셨다. 오히려 매우 세밀하게 그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셨다.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솥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다. 그

모든 소동이 지나간 뒤에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영적 침체에 우리는 자꾸만 화려한 기적이나 감정적인 체험을 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

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그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셨다. 하나님은 절망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음을 알려주셨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공동체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다.

스스로 불을 지필 힘이 없을 때 공동체 예배와 중보기도, 그리고 나눔이 나를 다시 타오르게 하는 은혜의 땀감이 된다.

겨울이 왔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게 아니다. 나무는 겨울 동안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봄에 더 높이 자라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에 집중한다. 이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영적 건조함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뿌리가 더 깊어지는 시간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보다 그저 그분 곁에 머무는 모습을 사랑하신다. 비록 지금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구름 뒤 태양이 단 한 번도 빛을 잃은 적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제나 더 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마 11:28).

영적 침체가 우리를 짓누를 때 스스로 채찍질하기보다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의 초대



전진 목사 (CHPLUS)

정주호의 Holy Body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체중감량과 건강을 위해 어떤 특정 음식만 먹고, 어떤 음식은 유독 가리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이 하루 동안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성실히 활동한다면 음식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의 균형과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는 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배출한다.

오늘 하루 몸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다면 건강을 음식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또한 불필요하게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정결하기 때문이다.

음식에 담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단백질은 근육과 조직을 회복시키며, 지방은 비타민 흡수와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



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인 음식을 입맛대로 또는 관리 차원에서 까다롭게 따져 먹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정작 그 동일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며 분노를 내뿜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선’을 먹고도 ‘악’을 내뿜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육의 양식만 먹고, 영의 양식은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신은 육의 음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영은 하나님

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단순히 본능과 이성만 살고, 하나님의

마음 없이 사는 모습을 경계하신 말씀이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걱정하는 ‘무엇을 먹고 입는 문제’보다 ‘생명 자체와 존재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읽고, 먹으며, 영적으로 소화해야 한다.

영육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건강 전도사 정주호가 응원한다.



정주호 대표 (중증로공동체, 재활과학박사, 한동대 겸임교수)

강남E공동체 전도콘서트 ‘봄을 봄’

4월 18일 오후 2시 양재천 영동3교 아래

강남E공동체가 주관하는 전도콘서트 ‘봄을 봄’이 4월 18일(토) 오후 2시 양재천 영동3교 아래에서 막 오른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믿지 않는 이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뜻깊은 행사다. 음악으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종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남E공동체는 지난해 가을에도 같은 장소에서 전도콘서트를 개최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반응이 뜨거웠고, 교회에서 문화 행사를 자주 열어달라는 요청에 따라 매년 봄과 가을 전도콘서트를 열기로 결정했다.

전도콘서트 ‘봄을 봄’에서는 풍성한 공연이 펼쳐진다. 부채춤 열림, 기타 김유정, 트럼펫 조소영 등이 공연한다. 사회는 황진기 전도팀장(강남E공동체)이 본다. 황진기 전도팀장은 “강남E공동체 전도콘서트 ‘봄을 봄’이 지역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잔치가 되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문의: 010-2739-4433

후원: 카카오펁크(79421736168)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메디엑세스-헤브론의료원, 캄보디아 의료선교 협력 논의

NGO 메디엑세스와 캄보디아 헤브론의료원(Hebron Medical Center)이 의료선교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교류를 했다.

NGO 메디엑세스는 지난 4월 7일(화) ‘헤브론의료원 신임 부원장 초청 연수’ 참석차 방한한 헤브론의료원 테브 렉스마이(Teav Leaksmy) 부원장을 송호철 장로(NGO 메디엑세스 이사)가 운영하는 ‘송호철드림내과’에 초대했다.

신장내과 전공의인 렉스마이 부원장은 드림내과에서 전반적인 시설과 의료 장비 운용 현황 등을 견학하고, 진료에 대한 실무 노하우를 배웠다. 이날 병원 방문에는 진은경 상임이사(사단법인 위드헤브론)가 동행했다. ‘사단법인 위드헤브론’

은 지구촌 저소득계층의 보건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이다.

렉스마이 부원장은 “NGO 메디엑세스 덕분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세세한 실무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면서 “이번 연수에서 배운 내용과 경험을 전문성으로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약속했다.

송호철 장로는 “이번 방문이 헤브론의료원과 캄보디아 의료 상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헤브론의료원과 더 많은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헤브론의료원 연수팀은 4월 12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일대일 양육자반 심화과정 특강 ‘메이크업’ 모집

4월 12일과 19일 오후 8시 온라인(Zoom)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심화과정 특강 ‘메이크업’이 4월 12일(일)과 4월 19일(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심화과정 ‘메이크업’은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수강 또는 수료한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자의 영성을 점검하고,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4

월 12일(일) ‘예수 1, 2’, 4월 19일(일) ‘예수 3, 4’를 주제로 신기섭 목사가 강의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해 개편한 일대일제자양육 새 교재 내용을 다룬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문자메시지나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5573-6793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월 화요성령집회 ‘영적 코어’

4월 화요성령집회가 ‘영적 코어’를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4월 14일 최성민 목사 ‘갈망, 파수꾼의 눈’ (막 13:32~37), 21일 최대홍 목사 ‘신뢰, 약속의 언덕’ (롬 4:13-25), 28일 최성민 목사 ‘소망, 영혼의 닻’ (히 6:13~20)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지난 4월 7일에는 이서진 목사가 ‘경의, 생명의 샘’ (시 34: 1~14)을 주제로 설교했다.

/ 남현영 기자

창조과학 봄 탐사 참가자 모집

창조과학선교팀에서 ‘창조과학탐사스쿨 봄 탐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6일(토)부터 5월 17일(일)까지 강원도 태백과 삼척 등지에서 진행된다.

창조과학탐사는 노아 홍수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성경적 대격변의 현장을 탐사하면서 <창세기>의 사실성을 현장에서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현장 탐험으로 창조 세계를 배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5월 13일(수)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8만 원.

문의: 010-3334-2388

남양주온누리교회, 3부 예배 신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본당

남양주온누리교회 3부 예배가 신설됐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드린다.

남양주온누리교회 3부 예배는 지난 4월 5일(일) 첫 예배를 드렸다. 첫 예배에서는 청소년 세례 및 입교식이 있었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성도 150여 명이 참석했다.

변대섭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

담당)는 “새롭게 예배가 시작됨으로 성령의 임재를 더 풍성히 경험하며, 오후 주일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며 “남양주온누리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교회는 ‘모자이크 교회’

4월 18일까지 ‘온누리 모자이크 주간’

온누리M미션이 주관하는 ‘2026 온누리 모자이크 주간’이 4월 18일(토)까지 이어진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외국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모자이크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한다는 의미에서 마련된 행사다. 외국인 성도 400여 명이 참석하고 있고, 참여하는 순은 140여 개다.

문의: 031-491-9650

/ 남현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산불 이재민 주택 건축 지원

‘의성 산불 피해 지역 주택 건축 지원사업 현판식’ 개최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4월 10일(금) 경북 의성군 단촌면 후평리에서 ‘의성 산불 피해 지역 주택 건축 지원사업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주택 건축 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주거 복구를 돕기 위해 조성한 후원금으로 추진됐다. 주택 8채 건립이 목표다. 현재까지 주택 4채 시공을 완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NGO 더멋진세상 신원석 사무국장과 오정민 실장, 보나콤 강동진 대표, ㈜보나하우징 양동현 이사, 김주수 의성군수 및 지역

관계자, 주택 수혜자 김성균 씨 부부 등이 참석했다.

신원석 사무국장은 “이번 주택 지원사업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남은 주택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해 이재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GO 더멋진세상은 향후 의성군을 비롯해 안동시 등지에서도 주택 20가구 건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홍하영 기자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주중 사역 가능, 교도소 사역 헌신한 성도

새사람사역팀 봉사자를 모집한다. 정기적으로 재소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팀이다. 재소자들에게 큐티(QT)와 일대일제자양육, 인성 교육 등을 한다.

봉사자 모집 부문은 일대일제자 양육(양육 3회 이상 양육자), 문서 전도, 중보기도, 약기, 예배 찬양 등이다. 주중 사역이 가능하고, 교도소

사역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용식 팀장(새사람사역팀)은 “재소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새사람사역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10-3242-8743

/ 남현영 기자

45기 드림어게인 참가자 모집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빙고 한동홀

45기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으로 인한 아픔과 불안 등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혼자의 삶과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혼한 남녀, 별거 중인 남녀, 소송 중인 남녀가 대상이다. 타 교회 성도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5월 23일(토)까지 전화(010-3489-2080)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자녀돌봄 4만 원). 문의: 010-3489-2080

■ 새가족 수료 간증



/ 오은주 성도(성동광진공동체)

참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해 교회의 찬 바닥에 무릎 꿇으시던 할머니가 계셨다. 장로님이신 아버지, 40년 동안 예배당에 꽃을 꽂는 사역을 담당하신 권사님인 어머니가 계신다. 강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나의 믿음은 연약하기만 했다. 대학생 시절에는 실존주의 문학이나 예술, 철학 서적 같은 것을 지성적인 것으로 여겼고, 성경은 가까이하지 않았다. 오직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던 오빠가 있었다.

1986년 가을쯤 오빠가 나를 신촌의 두란노서원 지하 1층에 데려갔다. 그곳에는 대학생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었다. 작은 지하 공간에 학생들이 꽉 차 있었고, 오빠와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을 가까이서 처음 보았다. 목사님의 목소리와 모습에서 느껴졌던 감동은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상 깊어 남았다. 강한 성령의 불같은 열정으로, 때로는 온화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셨다. 나는 예배드리던 내내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과 기쁨, 성령의 임재 속에 있었다.

그후 남편의 박사과정 유학으로 해외로 떠나

게 되었다. 그곳에선 온전히 하나님에게 붙들린 삶을 살았다. 현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민들과 믿음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다. 1998년 한국에 돌아와 얼마 전까지 매주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그 긴 세월이 지나 이제야 등록하면서 믿음의 양육자님을 만나서 일대일제자양육을 했다. 남편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했다. 우리 가족은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 감사하고 있다.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참 오래 기다려 주신 하나님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간절히 우리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준 오빠는 이탈리아 유학 이후 테너로 오페라 무대에도 섰던 성악가였다. 하지만 음악 선교를 위해 찬양사역자,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다가 얼마 전 하늘나라로 떠났다. 오빠는 투병 중에도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특히 ‘협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찬양을 좋아했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 날이 와도 협한 십자가 붙들겠네.”

죽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오빠에게 우리 가족이 온누리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천국에 전한다.

■ 온누리독서관 ‘독후감대회’ 수상작



/ 전혜영 성도(가정사역공동체)

그날들이 쌓이면!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보고 나서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가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의 생애를 알기 쉽게 전해 주려고 했던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흔히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남겨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 나의 삶이 과연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주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도 믿을 수 있을까? 삶이 다 할 때까지 풀어야 할 숙제라 생각한다.

책 <예수의 생애>를 읽으며 ‘은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포도원 비유를 보면서 늘 ‘불공평한 것 아닐까?’ 생각했는데, 모든 것은 주인의 은혜인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고 샅은 그 전 사람들과 같이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얼마 되지 않으나 크나큰 사랑으로 현재까지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회사 일이 건, 집안일이건 내가 더 많이 일한다고 불평 불만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다. 받은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매번 불평으로 하루를 보냈다는 게 부끄러웠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달라 떼를 쓴 것 같아 죄송했다. 구할 것은 따로 있는데 늘 남과 재어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 같아 반성했다.

디킨스가 자녀에게 당부한 말이 마음에 남았다. “그리스도인으로 남에게 선을 행하고,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말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리 있고 친절하게 대했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까칠하게 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싫어하던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아침 큐티 말씀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밥을 먹여 고향에 돌려보냈다는 말씀이 나왔다. 눈을 딱 감고 그 사람에게 잘해줬더니 그 사람도 천천히 바뀌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온유하고 자비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항상 실천이 문제였다. 디킨스의 당부처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내고자 한다. 그날들이 쌓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매일 선을 행하는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가 되고 싶다.

■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 간증



/ 김마루 지부장(LA/오렌지카운티 아버지학교)

나의 행복한 꿈의 동산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서 미안하고 눈물뿐이던 나날이었다. 어느 날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가 티켓을 사서 디즈니랜드에 가자고 했다.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곳을 말이다.

디즈니랜드는 꿈이 현실이요, 현실이 꿈인 듯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화려한 ‘꿈의 동산’과 암울하고 초라했던 나의 처지가 극명하게 대비됐다. 밤하늘에 형형색색 폭죽이 터지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나는 몰래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모르는 척 가만히 내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댔다. 폭죽이 터질 때마다 마음속 눈물샘도 함께 터지는 듯했다. 그래서 나에게 디즈니랜드는 아무것도 없던 이를 받아 준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자,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해 준 곳이다.

하나님 덕분에 아내와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평생 술에 젖어 살며 매일 밤 집안을 전쟁터로 만들고, 손

찌감하던 내 아버지의 아들답게, 서로를 원수보다 끔찍한 존재로 여기며 이혼을 선물한 부모님의 아들답게, 가정폭력 환경에서 자라며 매일 밤 석촌호수에 몸을 던지려고 뛰쳐나갔던 중학생 시절의 반항아 김마루답게, 나는 거칠고 서늘 퍼런 자아를 쏟아내며 사랑하는 아내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버지 학교를 만났다. 착직한 남자들이 떼지어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는 모습에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네 번의 만남에서 울고 웃는 참수다스러운 아저씨들을 보며 동병상련의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또 10년, 20년, 30년 넘게 아버지학교를 섬겨 온 선배님들의 순수함과 가정 회복을 향한 뜨거움에 감동했다. 지금 나는 내가 받았던 감동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이 경험하도록 두란노아버지학교 지부장으로 ‘LA와 오렌지카운티 아버지학교’를 섬기고 있다. 아버지학교에서 나는 행복하다. 내게 아버지학교는 디즈니랜드와 같다. 아버지학교는 나 역시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임을 알게 해 준 ‘행복한 꿈의 동산’이기 때문이다.

■ 진중세례식을 다녀와서



/ 최경희 권사(인천사랑공동체)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진중(陣中)세례식에 참여할 계획이 정해지자 사랑하는 두 아들이 군대에 있었던 시절이 떠올랐다. 지금은 감사한 추억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군복 입은 포대 청년들만 봐도 아들이 그리워서 울컥했다.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청년들에게도 그들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가족이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애뜻해졌다. 그래서 그 시간을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진중세례식 당일, 설렘과 기대 속에 목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부대로 향했다. 도착한 예배당 전면에 적힌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들의 젊음이 이 문장 안에서 위로받고 의미 있게 쓰임 받기를 기도했다.

진중세례식 중 알게 된 군번 인식표의 의미도 내 마음을 울렸다. 두 개의 표 중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전우가 가족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비장함이 밀려왔다. ‘내 옆의 너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죽음을 알려줄 전우’라는 의미를 알고 군번 인식표가 없는 나조차 이토록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 당사자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었다.

포효하듯 내지르는 그들의 함성은 전우애의 표상이자 아름다운 연대이며, 공동체의 뜨거움이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차올랐다. 낯선 환경과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도 전우들과 함께 그 시간을 견디며 서로 연결되는 소중한 ‘관계의 정원’을 가꿔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예수님 안에서 함께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한 전우와 나란히 선 진중세례식은 긴장감과 기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았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순간이기를 소망했다. 생사의 증인이 될 전우들과 연합해 영적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기로 소망했다.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얻은 존귀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기도했다.

용기 내어 하나님께 나온 장병들이 평생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귀한 용사로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빛나는 청춘을 나라를 위해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장로칼럼

매일, 하나님 앞에 서다



박재영 장로
(춘천새순교회)

설레는 마음 한편에 두려움을 안고 ‘큐티스쿨’을 시작했다.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의문과 걱정 속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큐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

지, 왜 이 훈련이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지에 대해 전문한 상태였다.

큐티스쿨을 시작하면서 ‘왜 나는 이제껏 이 귀한 말씀 훈련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과 자책 등 수많은 상념이 교차했다. 평소 온누리교회가 왜 그토록 일대일제자 양육과 순예배, 그리고 큐티를 생명처럼 여기고 장려하는지, 그 말씀 훈련으로 그토록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늘 궁금했다. 이번 큐티스쿨에 참여하면서 그 해답이 바로 ‘매일의 말씀 묵상’에 있음을 깊이 깨달았다. 그 훈련의 기틀을 다진 故 하용조 목사님의 탁월한 영적 능력과 지도력이 새삼 부러웠다. 마음 깊이 존경스러웠다. 아울러 부족한 내가 그 위대한 영적 유산을 공유하는 형제교회인 춘천새순교회의 시무장모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다가왔다.

때로는 나 자신을 향해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 이제 와서 새롭게 훈련받는 것은 어렵도 없는 소리다’라며 지레짐작 포기하려 했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하용조 목사님의 발자취를 이제라도 묵묵히 본받고 싶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인생의 황혼기이지만, 이제부터라도 큐티가 내 남은 삶의 호흡이자 일상이 되게 하리라 굳게

다짐한다.

무엇보다 춘천새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밤낮 애쓰시는 담임목사님의 눈물 어린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장로가 되고자 한다.

돌이켜보면 육신이 아프다는 핑계로, 또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앞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훌쩍 흘러보낸 지난 세월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아쉽게 느껴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다.

이토록 귀한 말씀 훈련의 자리를 마련해 준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열정과 헌신으로 탁월한 큐티 강의를 이끌어 주신 두 분의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을 이 지면을 빌려 꼭 전하고 싶다.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철저히 재조명하면서 남은 신앙 여정의 중심을 큐티에 두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이 모여 강력한 영적 원동력이 되고, 춘천새순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욱 아름답게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번 큐티스쿨의 풍경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연령대도 다양했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기존 성도님들과 이제 막 공동체의 식구가 된 새가족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격의 없이 큐티를 배우고, 삶을 나누며, 실천을 다짐했다. 이 벅찬 배움과 나눔의 시간이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부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한다. 눈부시게 변화되어 갈 춘천새순교회의 내일이 가슴 벅차도록 기대된다.

권사칼럼

PBN, 하나님의 난공불락(難攻不落)



정선희 권사
(영종온누리교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누리는 것을 넘어 세상과 ‘통용(通用)’하기 위함 아닐까. 지난해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통용을 경험하며 매우 흥분했던 일이 있었다. 교회 안에서는 흔히 나누는 하나님

의 은혜를 세상과 공식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게 된 일이었다. 바로 ‘NGO 더멋진세상(이하 더멋진세상)’의 사역을 논문으로 세상에 알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도록 한 일이다.

그 일은 지난해 4월, 아프리카 모리타니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그곳은 식재료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바른 자녀 양육법을 알지 못해서 영양결핍 아동이 유난히 많았다. 더멋진세상은 그 열악한 마을을 하나님의 ‘더멋진 마을’로 변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아동영양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지원사업이지만, 실상은 선교사 부부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더멋진세상은 그곳에서 ‘총체적 선교 원리’를 사용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신체적 영양 공급뿐 아니라 전인적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선교 전략은 영양결핍 아동들의 정상적이고,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데 더없이 좋은 원리였다. 또 더멋진세상에는 어린이사역 전문 자문그룹인 ECD(Early Childhood Development)팀이 있다. 총체적 선교 원리를 바탕으로 모리타니 선교사 부부와 ECD팀이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거쳤고, 마침내 ‘PBN(Programme Better Nutrition)’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부모들에게는 인식 개선, 보건위생 및 영양교육, 영양식 실습과 시식 시간을 제공했다. 아이들에게는 연령에 맞는 놀이와 인지 활동을 지원했고, 프로그램 시작 전 30분 동안은 음악 놀이 활동을 했다. 더욱 특별한 점은 선교사 부부의 지도 아래 이 모든 과정을 현지인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쉽게 구성했다는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보통 3개월 걸리는 정상 체중 도달 기간이 4주로 단축되었고, 참여 아동의 99%가 정상 체중을 회복했다. 정상 체중 3개월 유지율도 75%에 달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목격한 기쁨도 잠시, 우리는 곧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야 할 것 아닌가! 기도하던 차에 KOICA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국제개발협력>을 알게 되었고, PBN의 모든 과정을 논문으로 작성해서 투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논문을 쓰기로 작정한 날부터 스마트폰 고장, 노트북 분실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나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를 분실하게 만든 사단의 계략은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확신하게 해주는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는 모리타니와 한국의 시차를 활용해서 사단의 허를 찌르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로 맞섰다. 그 기도 속에서 PBN 사역 과정을 학술적 체계에 맞춰 정리할 수 있었고, 지난해 9월 논문을 제출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친 끝에 12월, 마침내 논문이 발간되었다. 그 논문 덕분에 ‘PBN’이라는 하나님의 난공불락(難攻不落) 은혜가 세상과 통용되는 통로가 되어 당당히 세상 한복판에 세워졌다. 이번 일을 겪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가장 치열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방법으로 통용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샬롬! 최다니엘, 김빅토리아 가정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대사관과 정부, 교회와 선교본부에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어저야 할 사역을 위해 그들의 권고를 따라 잠시 이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이 결정을 내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교제하고 있는 ‘피터’라는 청년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가정의 책임을 감당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그 가정의 어린 동생 ‘유스프’가 놀다가 팔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술을 받았더라면 회복할 수 있었겠지만, 주변 어른들의 “그냥 두면 낫는다”는 말을 믿고 치료를 미루는 사이 상황이 더욱 악화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와 수술비가 그 결정을 내리게 된 큰 이유인 듯 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시간

이 꽤 흐른 뒤였고, 아이의 팔은 심하게 부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난민들이 주로 찾는 병원을 함께 방문했는데, 뼈가 이미 잘못 붙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하더라도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지만, 우선 팔을 고정해 두 20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면서 자연치유의 가능성을 기대해 보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터는 더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떠나게 된 이유 역시 난민으로 살아가며 겪은 반복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센터와 교회에서 배운 대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점점 지쳐 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 깊은 실망을 느낀 듯 보였습니다.

그때 피터와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의 신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

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내용이었습니. 또한 하나님의 나타남은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무언가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제가 피터와 함께 있는 것도 그 증거이고, 제가 주는 도움은 저의 능력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자고 권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피터는 다시 조금씩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0일 뒤 동생의 팔을 다시 검사했을 때 놀랍게도 뼈가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고정 장치를 풀고 두 달 뒤 다시 경과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이 그 가정에 큰 아픔과 슬픔을 주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피터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

이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피터의 가정을 이번 전쟁으로 잠시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슬픔입니다. 저희와 떨어짐이 믿음의 멀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일로 시리아 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타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미약하게나마 경험해 봅니다.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셨던 사도 바울을 묵상해 봅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지만,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 최다니엘, 김빅토리아 선교사(레바논)

서빙고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매주 화 오후 7: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 - 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2층 콘서트를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0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주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플 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	
		하 과워웨이브 11:00 306호 / 다문화 꿈팡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과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8-5910 납대문화망공동체 예배 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양재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초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초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컴퓨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해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근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수원031.895.6500		대전042.825.3642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 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031.515.3521 토요주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4:0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9:0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꿈팡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강동02.475.9686		양지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10:3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를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를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064.794.8090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041.665.9686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팡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2-6층 • 남양주 변대성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5 경기도 평택시 신항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김태용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사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서산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경로 213 4층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해팔음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엘바인 박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박재영 목사 1-619-847-4147 896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장정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 01821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5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ui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 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 Yaomasa Bldg.4F, 3-63 Ai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 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DA DAIA-MOND 2F • 교토 권영택 목사 81-75-748-9303 (615-0854) 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	--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담부호 정재욱 김승훈
유현목 변대성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육환 김태용
최영민

● 부목사(전임)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관수 김도윤 김태위
김미정 김상규 김상수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상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자아 김종호
김창호 김원희 김태광 김홍주
김한규 김 현 김현실 김홍우
노규석 노지현 려문봉 문영재
민근홍 박근범 박성애 박영배
박성진 박철중 박철웅 박성우
박형준 배순안 배철상 배성우
서수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대중 신원식 신현민
송동주 송재호 안대진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진아 유현복
원미리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준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승호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이형목 이호준
임용성 장동원 장선원 장재원
장재홍 장지훈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철 정동윤 정성훈
정성진 정승철 정현석 정현서
정희성 제지훈 조동욱 조병홍
조바늘 조은광 조현수 진삼비
주하늘 주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해중
주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헤를드
하원희 황보규 황유일

● 전도사(전임)

김한솔 박성원 박성훈 신주용
유석현 유현우 이예찬 임동현
장건우 최하중 홍근영

●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이기훈 조호영

● 경배와 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 국내 파견 목사

고병석

● 협동 목사

김도일 류보세 방성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씨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킬 서영철 생애매그 양현수

●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권영찬 권예람 권병화 권혁성
김기희 김기태 김명초 김민수
김기희 김병석 김빛나 김소광
김승희 김신영 김영범 김영옥
김예은 김예찬 김유미 김재현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하성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홍미
김하목 김요진 나가노 마사토
나영필 남 해 드미트리 박 권
백성호 문수진 미즈바울 박 권
박미애 박 성 박성훈 박시은
박유진 박의력 박종필 박성진
박찬미 방예린 방진아 배성진
배윤주 배현희 서나영 서은규
서은지 서혜진 순위결 순영호
송찬진 서인택 순희순 신시주
신호철 에르제광 안루택 연경태
오성광 오성민 오영광 오예원
오성우 오해광 옥준우 우수진
우지은 유희리 유요한 유지은
유 찬 윤지현 이건준 이나단
이미진 이민규 이선민 이신혜
이소라 이승은 이승희 이은미
이은찬 이재용 이진수 이준영
이지영 이택민 임경미 임노완
정성영 정영주 전준호 조영욱
정정일 정기은 정승희 정영연
정영현 정주은 정찬중 제영민
조민희 조승기 조영찬 조혜원
조운식 조준우 조현주 조영진
지석규 지수정 주승환 주영진
차선일 최성진 최 은 최영주
최해정 하예립 하현영 한숙희

●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오승
권용성 권용한 권철중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두진
김병세 김병중 김병철 김명훈
김병욱 김상섭 김석인 김선배
김선택 김성복 김성호 김상인
김수영 김영수 김용기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 원 김원규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의복
김이곤 김장렬 김재욱 김재일
김종근 김종성 김종승 김주홍
김준규 김준용 김준홍 김지홍
김창국 김창수 김태경 김태경
김하중 김형걸 김형식 김형중
김하수 나상권 나영욱 남상길
노기홍 노재환 류기범 류지영
문성기 문창호 문창호 문종철
문현구 박 공 박두원 박병률
박병익 박봉태 박성웅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애 박영태 박용국
박우형 박일규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형민 박용균 배기영
배 문 배병태 백남인 백승웅
백흥기 방상선 서성렬 서성현
서진봉 서진교 성주명 성창섭
손정래 손한기 송기선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종태 신민인 신영자 신우권
신화철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동훈
안성철 안영태 안태환 양유식
양재수 양준경 엄태진 오성연
오성훈 오승구 원우현 유 형
유병훈 유완영 유재현 유 현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석우
윤영자 윤기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용 이백희 이병국
이봉익 이상기 이상태 이상도
이상욱 이영철 이영세 이영철
이승경 이영대 이창로 이경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영근
이종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현열 이현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임병수

● 사역장로

장 광 장형준 장병규 장보원 장상기
배정준 배종진 배중국 배정호
서명수 서병화 서광재 서정호
송기태 송기훈 송동섭 송기훈
신민호 신기현 신동기 신철우
신현호 신현식 신재원 심필호
심천보 심효무 심희돈 안상현
안연환 양상식 양 웅 오 명
이동욱 양준홍 양현열 오승택
오병규 오상목 오세현 오시정
오이식 용내문 우승영 유지홍
윤상철 윤석일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동욱 이봉길 이상현 이상울
이성준 이성환 이성철 이석일
이성진 이성일 이수만 이승배
이진준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인용
이재형 이재광 이재욱 이재준
이정구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주호 이진택 이찬주 이봉우
이태일 이하일 이혜남 이홍선
임창우 임 훈 임상범 임정열
임재진 임호열 임희창 정경문
장재식 장관수 장광열 장문석
장성수 장승훈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진국 정광열 정기삼
정명호 정민호 정석순 정연식
정영기 정영주 정은택 정원만
정응호 정일영 정재환 정재범
정찬희 정영택 정대경 제무성
조대식 조병현 조승수 조성환
주성대 주영창 주재광 지상목
진종구 차준근 최민철 최병선
최석민 최성민 최성환 최용일
최이정 최종필 최주관 최준영
최현재 최후원 최태호 하갑천
최대환 최영남 최영환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상현 한승만
한영우 한왕식 한필규 허 경
허대환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철 홍승선
홍승우 홍호식 황병철 황상윤
황성룡 황성주 황윤일

●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흥만 이원로 이혁상
장용룡 전영환 장광택 장남식

● 사역장로

박지수 박태준 박현 박태성 박태식
박효신 박홍진 박찬중 박승호
서명수 손태용 송동섭 송기훈
신민호 신기현 신동기 신철우
신현호 신현식 신재원 심필호
심천보 심효무 심희돈 안상현
안연환 양상식 양 웅 오 명
이동욱 양준홍 양현열 오승택
오병규 오상목 오세현 오시정
오이식 용내문 우승영 유지홍
윤상철 윤석일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동욱 이봉길 이상현 이상울
이성준 이성환 이성철 이석일
이성진 이성일 이수만 이승배
이진준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인용
이재형 이재광 이재욱 이재준
이정구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주호 이진택 이찬주 이봉우
이태일 이하일 이혜남 이홍선
임창우 임 훈 임상범 임정열
임재진 임호열 임희창 정경문
장재식 장관수 장광열 장문석
장성수 장승훈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진국 정광열 정기삼
정명호 정민호 정석순 정연식
정영기 정영주 정은택 정원만
정응호 정일영 정재환 정재범
정찬희 정영택 정대경 제무성
조대식 조병현 조승수 조성환
주성대 주영창 주재광 지상목
진종구 차준근 최민철 최병선
최석민 최성민 최성환 최용일
최이정 최종필 최주관 최준영
최현재 최후원 최태호 하갑천
최대환 최영남 최영환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상현 한승만
한영우 한왕식 한필규 허 경
허대환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철 홍승선
홍승우 홍호식 황병철 황상윤
황성룡 황성주 황윤일

● 사역장로

정몽준 정상건 지성환 채수삼
홍순직 황용식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박자인 김정욱
김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호
주치수 최태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합지연 황재익

● 사역장로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한결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부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라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조익현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오인철
조지은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해경 최훈희 홍우석

● 사역장로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 전도사

강요나 강진영 고은아 강성효
강은나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백만기 서영찬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오지혜
이대열 이민혜 이서훈 이수연
이영은 이용기 이은실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재윤 장유미 정병천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성현 진혜선
최윤호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하정훈 한현희 핸드슨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Leo
Wang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 사역장로

김하윤 권덕수 권우중 김경덕
김경선 김수광 김수호 김 완
김현중 남 영 노희규 백남인
백호원 서인택 신중수 송창도
안종인 우광범 우승호 윤영오
이관표 이광철 이문호 이용하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한덕중
홍규석

● 사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오현 고다이라
김승철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대근 노유철 박오택 성한제
송대민 신술문 심상일 여훈필
유명현 이상현 이수성 이승구
이은창 이준상 오정래 장민용
정한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희
최정주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최영진 Hyun Park Hyun Chang
Christine Kwon

●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 협동장로

강광일 관재현 김동민 김달수
김명환 김성수 김요섭 김중수
윤정근 윤한도 인경식 임현식
오명진 정석환 최승호 최태영

소천

4/3(금) 중종로 정경희 권사 모친상 고 이옥랑
4/3(금) 동대문중앙 이진희 성도 부친상 고 이천연
4/4(토) 양재 식당팀 박영준 과장 부친상 고 박민수
4/4(토) 강남A 한정자 권사 부친상 고 박민수
4/5(일) 분당B 최미라 성도 부친상 고 최계술
4/6(월) 서초B 신지원 권사 부친상, 정철윤 집사 빙부상
고 신동균
4/6(월) 강남E 배희숙 성도 모친상 고 황덕봉
4/6(월) 과천의왕 이윤숙 성도 부친상 고 이종욱
4/7(화) 서초B 김연희 성도 모친상, 이상훈 성도 빙모상
고 김옥경
4/7(화) 양천 고미라 성도 부친상 고 고창길
4/8(수) 여의도 김성형 집사 모친상, 김연진 권사
시모상 고 김경열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차해, 중풍 등 입소 어르신(여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
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대한한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보드미 봉사자 모집
자격: 용산구민 누구나
내용: 용산구 내 고령, 은둔 어르신 발굴, 어르신 대상 정서 및 돌봄
지원, 문화활동 동행 등
신청: VMS 신청, 우선
문의: 김유진 팀장(070-4340-250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식사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림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인
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
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현금온라인 안내
입금주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입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 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태돌아치로,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미썬 자동차 안쪽)
상담 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비용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중등)모집
대상: 초1~중1(타 캠퍼스, 타 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신영화(010-5091-1862)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전임교수 초빙
분야: 선교학, 기독교교육학, 실천신학(설교학 전공자 우
대)
접수: 5월 6일(수) ~5월 15일(금) 17: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e.kr)에서 초빙공고 참조

온누리선교재단 인사·노무 전문가 정규직원 채용
업무: 인사기획, 노무관리 등
자격: 대졸 이상, 관련 직무 경력자 등
우대: 노무법인 등 실무자 적극 우대
형태: 정규직
지원: 입사지원서(자유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nicho
las@onnuri.org) 또는 Fax 접수(02-749-0206)
문의: 온누리선교재단 총무팀(02-3215-3102)
*자세한 사항은 JOB KOREA 게시 채용공고를 확인

THE NEW 하늘빛향기



풍당 다운로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



패널 가수 원혁



패널 가수 간미연



MC 김재원 아나운서



패널 개그우먼 오나리



패널 개그우먼 김혜선

시 청 안 내

CGN TV 월요일 오전 10시 20분

CGN 유튜브 화요일 오전 9시

풍당 월요일 오전 0시

추천 회차



12편 이인용 장로



17편 최선규 아나운서



21편 김형협 감독



CGN의 모든 콘텐츠는 풍당과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GN 후원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온누리선교재단) ARS 060-705-0000 후원문의 02-796-2243